

전자 CEO에 ‘기술통’ 류재철 미래성장 위한 세대교체 단행

LG그룹, 2026 임원 인사

전자, 사장 2명 등 총 34명 승진
로보틱스·AI 중심 조직 재편
휴머노이드 개발 본격 착수
화학, 신임 CEO에 김동춘 선임

LG그룹이 세대교체를 전격 단행하며 미래 성장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G그룹은 27일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미래인재 등용을 키워드로 한 인사를 단행했다.

LG전자의 경우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기술통’으로 알려진 류재철 HS사업본부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LG전자와 함께 LG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LG화학에선 신학철 부회장이 용퇴하고,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신임 CEO로 선임됐다. LG이노텍도 자율주행 센싱 부품, 로보틱스 부품 등 원천기술 전문가인 문혁수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다양한 분야의 미래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이날 인사에서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인도LG전자 2명 포함)이 승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EO 교체다.

37년간 LG맨으로 지난 4년간 CEO로 일하며 미래 성장을 다진 조주완 사



류재철 LG전자 CEO

장은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했다. 그 자리에 ‘기술통’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이 올랐다.

류재철 신임 CEO는 LG전자의 상징과 같은 가전사업의 베테랑 엔지니어 출신이다. 1989년 입사한 류 CEO는 세탁기 엔지니어로 시작해 다른 가전까지 섭렵했다. 지난 2021년부터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는 H&A사업본부장을 맡아 LG 생활가전을 단일 브랜드 기준 글로벌 1등 지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지난해 LG전자가 최대 매출을 견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류 신임 CEO의 공이 컸다. 지난해 H&A 사업본부(HS사업본부로 변경) 매출액은 33조203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조446억원이다. 류 신임 CEO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전에 적극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LG전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사업 역량 강화

를 위한 조직도 신설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핵심 인프라로 여겨지는 냉난방공조(HVAC)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담당 조직도 만들었다.

LG전자는 로봇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 로봇선행연구소 산하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HS로보틱스연구소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선행연구에 집중했다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사업화하는 방향에 더 방점을 둔 것이다.

특히 가정용 로봇 영역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을 개발해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향후 가정용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CTO부문 로봇선행연구소 산하 휴머노이드로봇태스크를 이끌며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이재욱 연구위원이 HS로보틱스연구소장을 맡는다.

전사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디지털전환(DX)센터와 업무혁신담당을 AI전환(AX)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업무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R&D) 고도화, 구성원 역량 강화 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DX센터장을 역임한 조정범 전무가 AX센터장을 맡는다. <2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2025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심사에서 (왼쪽부터)삼보기술단 신병관 부회장(도로및공항기술사), 안상철 ‘아텍’ 대표(조경기술사),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수상작을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메트로 ‘2025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최종심사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7곳 선정

‘아크로 베스티뉴’,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이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애티(休&休)’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아파트의 미학 휴애티’에 소개된 30곳의 아파트 가운데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이 정해졌다.

▲테마조경대상 ‘아크로 베스티뉴(DL이앤씨)’ ▲친환경단지대상 ‘휘경자이 디센시아(GS건설)’ ▲브랜드 혁신대상 ‘송도 럭스오션SK뷰(SK에코플랜트)’ ▲스마트환경대상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트레센츠(대우건설)’ ▲조경혁신대상 ‘분당 아테라(금호건설)’ ▲미래가치대상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2차(제일건설)’ ▲커뮤니티대상 ‘더샵 일산퍼스트월드(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주인공으로 꼽혔다. <관련기사 12·13면>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수상작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서

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해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안상철 ‘아텍’ 대표(조경기술사), 삼보기술단 신병관 부회장(도로및공항기술사), 이정희 메트로신문 전무이사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서구원 심사위원장(한양사이버대 교수)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아파트 테마조경이 늘고 있고, 친환경을 고려한 조경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입주주민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아파트 조경대상이 벌써 다섯번째를 맞이했다”면서 “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은, 4연속 금리 동결… 성장률 전망 상향

치솟는 환율·가계대출 증가 고려 올해 성장률 1%·내년 1.8%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소비·수출 개선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0.9%에서 1.0%, 1.6%에서 1.8%로 상향했다. 각각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0.2%p 올려 잡은 것.

하지만 여전히 1%대 성장과 2% 안팎 물가 흐름,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대출·환율 리스크를 이유로 추가 금리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

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환 위원이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맞물리며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1.0%, 1.8%로 상향했고,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다.

물가에 대해서 여행·서비스와 농축수산물,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2%를 다소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1%, 2.1%로 8월보다 높아졌고, 2027년 전망치는 2.0%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포스코인터 ‘팜 사업’ 완전체계 구축

삼푸르나 아그로 지분 66% 인수
CPO 생산능력 60만t 규모로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팜 원유(CPO) 생산부터 정제까지 이어지는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식량·바이오 사업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동남아 팜 산업의 미드스트림(Midstream) 단계까지 진출해 완전한 밸류체인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서 포스코그룹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인도네시아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 지분 65.72%를 약 1조3000억원에 인수했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수마트라·칼리만탄 지역에 약 12만8000ha 규모 농장을 보유한 중대형 사업자로, 기존 포

스코인터내셔널의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전체 농장 규모는 약 15만ha에 달한다.

이번 인수와 더불어 GS칼텍스와 합작한 정제공장 ‘PT ARC’가 가동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PO 생산·정제·유통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PT ARC는 연간 50만t의 정제 능력을 갖춘 중형 설비로, 회사의 CPO 생산능력은 기존 20만t에서 60만t 규모로 확대됐다. 업계는 정제시설 확보로 연간 최대 3000만 달러(약 400억원) 수준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 부문 영업 이익은 올해 상반기 기준 704억원으로, 연간 1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25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메트로 한줄뉴스



▲감사원 “尹정권 ‘의대 2000명 증원’, 부적정 예측 토대로 추산”

▲김 총리 “전략자산 K뷰티, 기회지만 위험도 있어… 정부가 적극 나설 때” /사진 뉴스스

▲與 의총 “12월 임시국회서 사법개혁안 등 통과 시켜야”… 정청래 “계엄 해제처럼 결연한 자세로”

▲김학자·조숙현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평행선… “당 입장 받아야”

▲국힘, 의총서 “계엄 사과해야” 목소리… 필버 여부는 오후 재논의